



국내 카메라업계의 올 하반기 동향점검

I, 국내카메라업계의 일반현황

최근 2~3년간의 경기침체로 기업경영난을 겪고 있던 국내 카메라업체들이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자모델을 개발, 국내시판은 물론 해외 수출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한편 카메라 생산기술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본 카메라 업체들의 대리전쟁터로 비유되던 국내 카메라시장이, 이제는 국내외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항공, 금성사, 및 현대전자를 비롯한 국내 카메라업체들은 최근 초근접촬영기능, 퍼지기능, 다초점촬영기능 등 독자적인 기능을 갖춘 카메라를 잇따라 개발, 출시하고 있으며, 또한 삼성항공과 삼양광학은 해외에 카메라기술 및 생산설비를 수출키로 계약함으로써 침체늪에 빠진 국내 카메라시장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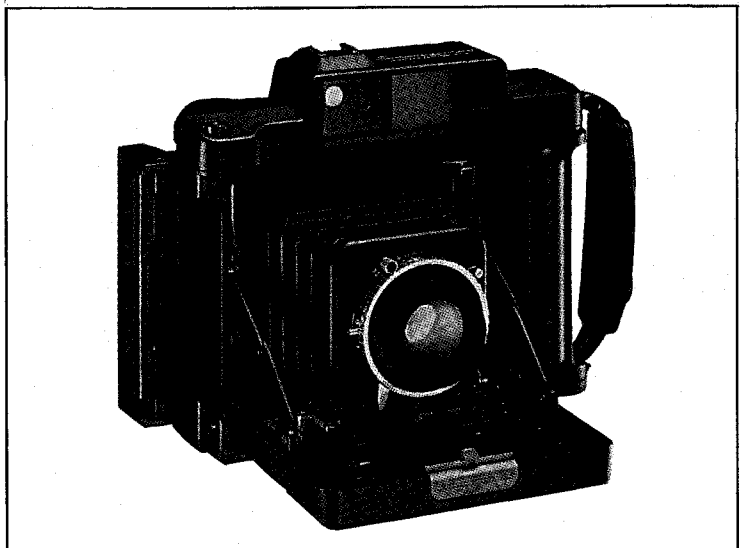
하지만 국내 광학기업계의 다른 일각에선 최근 국내 시장의 침체로 인해, 지난 87년~88년 경에 누렸던 핑크빛 무드를 다시 구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수요 내지는 대체수요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밀수품 내지는 해외여

행자들의 외국산카메라 국내 반입 및 홍콩, 대만 등을 통한 외국 카메라의 변칙적 우회수입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독자모델 개발과 수출다변화 및 해외기술이전을 통해 불황을 타개하고 있는 국내 카메라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와 밀수 및 변칙수입금지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보호단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카메라업계에 따르면, 현재국내 카메라시장 규모(밀수품 포함)는 1천 5백억 원 정도이다. 그러나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 카메라 산업의 현황을 감안해 볼때, 국내 카메라업체들의 경우도 향후 현상유지가 어려울리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비교우위에 있는 기종을 우선적으로 국산화시켜 나가야 하리라는 게 카메라 관련업체들의 전반적 견해.

”

반적인 견해다

이와관련 동원정밀의 강병원 상무는 ‘국내 카메라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제 경쟁력이 뛰어난 그리고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 특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원정밀의 강병원 상무는 ‘저급카메라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또한 고급시장은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국내 카메라업체들은 줌기능을 지닌 콤팩트 카메라 시장에서 한판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카메라업체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비교우위에 있는 기종을 우선적으로 국산화시켜 나가야 하리라는 게 카메라 관련업체들의 전반적 견해

이다.

또한 국내 광학기기업체 관계자들은 국산카메라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카메라업 품호환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내 카메라업체 각사에서는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카메라업체 각사의 올 하반기 신모델 출시 및 영업계획과 해외기술이전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국내카메라 업체별 올 하반기 대응책 점검

(주)금성사

금성사는 올들어 고급형 전자동 AF카메라인 「오토맨-7」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줌밍(Zooming) 속도를 보유한 「오토맨 슈퍼줌」을 자체기술로 개발, 출시하여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편, 최근에는 동남아지역에 카메라 플랜트수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성사는 최근 가전 및 정보통신산업의 핵심기술인 광학기기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중장기 신기술 개발계획을 수립, 이를

“

오는 '96년에 최첨단 카메라인 AF SLR카메라를 개발할 계획인 금성사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 약 60억원을 투자할 계획.

”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금성사는 최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세계 최소형, 최경량 3배줌 카메라를 개발하고 또한 오는 96년에는 최첨단 카메라인 AFS-LR카메라를 개발할 계획인 금성사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 약 60억원을 투자, 위상차 검출방식의 초점조절시스템, 동체예측 초점조절 기술, 및 셔터메카니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한편 금성사는 카메라 뿐만 아니라 가전 및 사무기기용 렌즈개발에도 적극 나서 최근 들어서서는 비디오 카메라용 줌렌즈, 복사기, 팩시밀리, CCTV용 렌즈개발 및 생산설비에 8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차세대 제품인 HDTV용 줌렌즈, 대화면 프로젝터용 줌렌즈 및 광자기제품용 광학제품 개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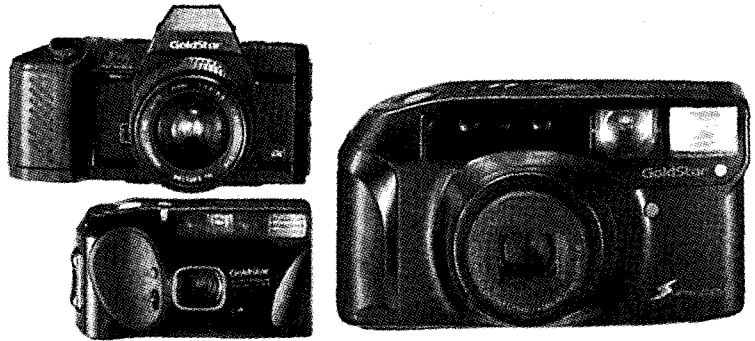
도 수백억원대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성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현상기, 현미경, 정밀계측기 및 건축용 측정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일본 및 독일의 우수기업과 기술공동계약 및 공동개발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금성사는 올 하반기에 리모콘기능이 추가된 2~3개 기종의 카메라를 새로이 발매할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동원정밀(주)

동원정밀은 최근 국내 카메라 산업이 침체현상을 보임에 따라 이미 지난해 부터 카메라 사업 비중을 축소, 사업다각화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동원정밀은 최근 카메라부문의 투자비용을 낮추는 대신 내수영업조직을 정비, P-50, 505, SE, Zoom-9000 카메라를 중심으로 영업활성화를 기할 방침. ”

이와관련 '광학사업분야에서는 카메라, 현미경 및 렌즈유니트를 중심으로 올해 1백 90억원의 매출액 달성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비광학분야인 냉동, 냉장 관련장비, 포장, 전산시스템 및 정수기사업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동원정밀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현미경과 렌즈유니트를 독일, 이태리, 대만, 일본 등지에 수출, 연간 35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동원정밀은 최근 카메라부문의 투자비용을 낮추는 대신 내수영업조직을 정비, P-50, 505, SE, Zoom-9000 카메라를 중심으로 영업활성화를 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항공산업(주)

삼성항공은 지난해 3배급 AF줌 카메라인 「퍼지줌 1050」을 개발, 영국의 유명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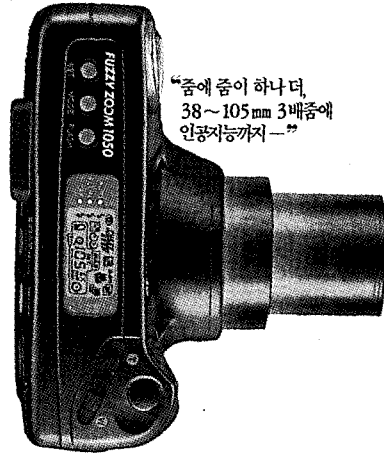
메라잡지인 '휘치카메라'誌로부터 호평을 받는데 이어 최근에는 독립국가연합(CIS)의 최대 카메라업체인 제니트사에 「AF슬림」생산기술을 이전키로 잠정 합의, 국내 카메라업체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삼성항공은 지난 6월 제니트사에 4천만 달러 규모의 「AF슬림카메라」 부품 및 생산설비를 수출키로 했으며, 또한 내년 3월 부터는 현지조립용 반제품 수출방식(SKD)으로 제니트사에 부품을 수출, 조만간 「AF슬림카메라」의 독립국가연합 현지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AF슬림카메라」의 생산방식을 현지조립용 반제품 수출방식에서 현지조립용 부품생산방식으로 바꾸고, 또한 오는 94년 부터는 현지도 생산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지 고급카메라를 연간 60만대 정도 생산하고 있는 제니트사에서는 「AF슬림카메라」를 연간 40만~50만대 규모로 생산, 향후 삼성브랜드로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79년 일본 미놀타사와의 기술제휴로 처음 카메라사업에 참여한 삼성항공은 84년 독자모델(SF-A) 개발을 기점으로, 90년에는 카메라



“줌에 줌이 하나 더, 38~105mm 3배줌에 인장기능까지-”

3백50만대 생산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항공은 지난해 3배줌 카메라 독자모델(Fuzzy-Zoom 1050)을 개발한데 이어, SLR카메라를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삼성항공에서는 총 22개의 카메라모델중 현재까지 12기종의 독자모델을 개발했으며, 또한 카메라 핵심부품인 셔터를 중급기까지 자체 개발,

“
카메라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4백억원의
시설투자를 하여 연간
1백50만대의 카메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항공에서는
카메라사업 외에도
광학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어

”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항공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과 협력, 올 연말에 줌카메라용 셔터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고급기종용 셔터의 경우는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카메라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4백억원의 시설투자를 하여 연간 1백50만대의 카메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항공에서는 카메라사업 외에도 광학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CCD응용카메라, 도어비전, VCL unit를 개발, 지난해부터 시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카메라 부문 매출액, 7백억원(수출 4백5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항공에서는 현재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삼성항공은 향후

중급기종을 주력제품으로 육성하고 또한 고급기종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삼양광학공업(주)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양광학은 지난 90년부터 중국 북방산업총공사측에 교환렌즈와 AF카메라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그 동안 중국측과 의향서 및 합의를 교환하고 가계약을 체결해오다 지난 7월 12일, 1차로 AF카메라 기술이전 관련 최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양광학은 '금번 중국측에 AF카메라 기술을 이전한 데 이어, 올 연말에는 2차로 교환렌즈기술을 이전키로 했다'고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삼양광학은 올해 중국

“삼양광학은 그동안 주력 품목이던 교환렌즈와 카메라 위주의 기업경영에서 탈피, OA기기와 의료기기용 특수렌즈 등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에 AF카메라 및 교환렌즈 기술이전과 함께 특수렌즈사업을 확장, 악화된 기업경영을 대폭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양광학은 그동안 주력품목이던 교환렌즈와 카메라 위주의 기업경영에서 탈피, OA기기와 의료기기용 특수렌즈를 국산화 하여 수입대체화를 시도하고 있는 한편, Stepper 및 캠코더 등 고부가가치 제품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중국 북방산업총공사측과 AF카메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삼양광학은 향후 중국에서 생산될 AF카메라를 제3국으로도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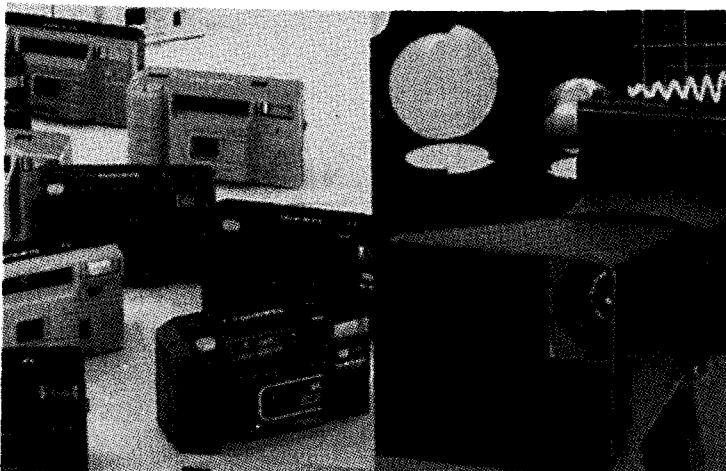
아울러 삼양광학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는 카메라 보급대수에 비해 사진현상소가 부족, 국내 카메라업체와 현상기업체간 컨소시엄 형태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산 미니랩의 중국 수출 물꼬를 틀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남산업(주)

세계 최대 반도체조립업체인 아남산업은 최근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일본니콘사와 기술 제휴, 조만간 국내 카메라 시장에 본격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카메라사업 이외에도 현미경, 및 쌍안경분야에 신규 진출키로 한 아남산업은 국내 유수의 카메라업체였던 아남정밀의 생산시설과 유휴인력을 일부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아남산업은 '광학기기 및 반도체 장비 전문업체인 일본 니콘사로 부터의 기술도입 대가로 향후 3년간 매출액의 3.6%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니콘사에 지불한다'고 밝혔다.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는 최근 국내 카메라 업계의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전자는 「AZ-330」 줌카메라를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미니카메라에 줌기능을 첨가한 콤팩트카메라 개발에도 착수, 조만간 새로이 선보일 예정이다.



2배줌 카메라 「Z-70」에 이의 초경량 슬림형 카메라 「미니 AF」와 줌 카메라 「A-30」을 본격 양산하고 있는 현대전자는 「AZ-330」, 줌 카메라를 개발중에 있으며 또한 미니카메라에 줌기능을 첨가한 콤팩트줌 카메라 개발에도 착수, 조만간 이 두 기종을 새로이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선경 과 (주)신도시스템

(주)선경(폴라로이드사업부)과 (주)신도시스템(특수사업부)은 외산 카메라를 국내 수입, 시판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도 최근 국내 경기불황으로 올 하반기 매출목표치를 조정, 및 수입품목을 다변화 하 「AF-10」, 「AM-100」, 「Z-70」 및 「미니 AF」를 주력 기종으로 지난해 1백28억원(수출 4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대전자는 올 1/4분기중엔 25억원(수출 10억원) 규모의 카메라를 판매한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현대전자는 현재 3배는 등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경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폴라로이드사로부터 인스턴트카메라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선경은 최근에는 IMC사가 생산하는 쌍안경을 국내 시판 중에 있어... 신도시스템에서는 올 하반기 중엔 카메라 유통구조를 정립하고 대리점 채권관리에 주력할 방침.



폴라로이드사로 부터 인스턴트(Instant)카메라를 국내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IMC사가 생산하는 쌍안경을 국내 시판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선경은 올 하반기 폴라로이드사로부터 신도모델의 카메라를 새로이 수입, 발매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신도시스템의 경우 89년 7월, 대만으로부터 카메라 수입 판매를 처음 시작했다. 사업 초기, 신도시스템은 카메라부문의 매출신장을 30% 이상 기록했으나, 지난해부터 점차 판매부진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간 3만~4만대의 카메라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신도시스템에서는 「SR-10D」를 올 하반기 중에 새로이 수입, 국내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신도시스템에서는 특히 올 하반기 중엔 카메라 유통구조를 정립하고 대리점 채권관리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